홍윤숙 시에 나타난 '타관'의 공간성 연구

오윤정*

차례

1. 서론
2. 시적 공간으로서의 '타관'
3. '타관'을 통해 본 홍윤숙 시의 공간인식
   3.1. 이민자 의식과 역사적 주체의 공간
   3.2. 유한한 삶의 인식과 실존의 공간
4. 결론

〈국문초록〉

홍윤숙 시인은 전후 여성시의 독특한 지형을 보여주는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연구는 홍윤숙의 시가 사색적, 내면지향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논하고 시가 보여주는 지성과 감정의 절제에 주목한다. 그러나 홍윤숙 시에 대한 논의는 단평이나 개별 시집 연구에 국한되거나, 동시대의 여타 여성 시인과의 비교 고찰에 머무는 등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홍윤숙 시인이 어떤 경향이나 유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성시인이라는 편견이 연구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타관'이라는 시적 공간을 통해 홍윤숙 시의 현실적, 역사적 공간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다. 홍윤숙 시의 '타관'은 단지 구체적인 지명이나 장소를 넘어 홍윤숙 시의 특질을 보여주는 시적 공간이다. 시적 공간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녹아 있는 언어화된 장이며, 시적 화자의 의식과 무의식이 발현되는 장소이다. 홍윤숙의 시에

* 서울예대 강사

서 '타관'은 삶과 죽음, 고향과 타향, 인간 근원의 고독과 같은 시적 인식을 펼치는 시적 공간이다. 이는 분단 디아스포라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한편으로 죽음과 삶에 관한 실존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이고 허무주의적인 홍윤숙의 시는 여성시의 지형에서 독특한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홍윤숙 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연구는 그 가운데 '타관'이라는 시적 공간의 의미를 고찰하고, 그를 통해 홍윤숙 시의 시적 지향과 특징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 홍윤숙, 타관, 시적 공간, 공간성, 기억 공간, 장소애, 디아스포라, 시간의 공간화

1. 서론

홍윤숙(1925~2015)은 전후 여성시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녀는 1947년 『문예신보』에 시 「가을」을, 1948년 『신천지』에 「낙엽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58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원정(園丁)」이 당선된 이력도 있다. 이어 총 17권의 시집[1]과 9권의 수필집을 상재했고, 시극·수필·희곡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으며, 천 편에 가까운 시를 창작한 다작의 시인이다. 무엇보다 1962년 『여사시집』을 시

1) 홍윤숙의 개인시집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여사시집』, 동국문화사, 1962; 『풍차』, 신흥출판사, 1964; 『장식론』, 하서출판사, 1968; 『일상의 시계소리』, 한국시인협회, 1971; 『타관의 햇살』, 유림문화사, 1974; 『하지제』, 문지사, 1978; 『사는법』, 열화당, 1983; 『태양의 건넛마을』, 문학사, 1987; 『경의선 보통열차』, 문학세계사, 1989; 『낙법놀이』, 세계사, 1994; 『실낙원의 아침』, 열린출판사, 1996; 『조선의 꽃』, 마을, 1998; 『마지막 공부』, 분도출판사, 2000; 『내 안의 광야』, 열린, 2002; 『지상의 그 집』, 시와 시학사, 2004; 『쓸쓸함을 위하여』, 문학동네, 2010; 『그 소식』, 서정시학, 2012.

작으로 2012년 마지막 시집인 『그 소식』에 이르기까지 3~4년마다 시집을 출간할 정도로, 부지런히 시작활동을 이어간 시인이기도 하다.

현대시사에서 홍윤숙 시인은 전후 여성시인 1세대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전후의 독특한 지형을 보여주는 여성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자들은 홍윤숙의 시가 사색적, 내면지향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논하고 홍윤숙 시가 가진 지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한편으로는 "외적 폭력에 스스로 위안 받거나 구제받기 위한 센티멘탈리즘"이라거나[2], "역사의식이나 현실의식이라는 치열한 시정신이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3], 과거 감상 위주의 한국 여성시의 흐름을 벗어나서 냉철한 지성과 감정의 절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식'으로서의 시의 가능성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는 의미 있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4]

그러나 홍윤숙 시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단평이나 개별 시집 연구에 국한되거나, 김남조를 비롯한 동시대의 여성 시인과의 비교 고찰에 한정되는 등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5] 여기에는 2015년 작고

2) 김재홍, 『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 196쪽.
3) 김현, 「감상과 극기-여류시의 문제점」, 한국여류문학인회 편, 『여류문학전집6』, 삼성출판사, 1967. 323~356쪽.
4) 김현자, 「홍윤숙의 거리두기와 집짓기의 시학」,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문학과 지성사, 1997, 297~299쪽.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 『여성문학연구』21, 2009. 26쪽 참조.
5) 홍윤숙 시에 대한 기존연구는 몇 권의 석사논문과 타 시인과의 비교 연구가 있다. 석사논문으로는 김영수, 「홍윤숙 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1998, 김귀희, 「홍윤숙 시 연구」, 성신여대, 2000, 유영례, 「홍윤숙 시 연구」, 호남대, 2005, 배옥주, 「홍윤숙 시의 어조 연구」, 부경대, 2010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대체로 홍윤숙 시를 통시적으로 연구하거나 문학사적 위상 등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 그 외에도 김해성, 『한국현대시문학전사』, 형설출판사, 1975, 정영자, 『한국현대여성문학론』. 지평, 1988, 김지향, 『한국현대여성시인 연구』, 형설출판사, 1994, 김현자, 「홍윤숙의 거리두기와 집짓기의 시학」,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문학과 지성사, 1997, 김광림, 「이 시대를 사는 아픔의 인식」, 『현대시학』. 1979. 3, 하현식, 「언어의지와 다이내미즘」, 『현대시학』, 1985. 9, 조남익, 「김구용 · 홍윤숙의 시」, 『현대시학』, 1986. 7,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1, 2009 등의 소논문이 있다. 이러한 기존연구는 홍윤숙 시에 대한 단평과 시집평, 그리고 타 시인과의 비교연구에 한정

할 때까지 현역 시인이었다는 점, 그의 시가 여성적 일상과 존재적 사유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떤 경향이나 유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성시인이라는 편견이 연구에서 소외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홍윤숙의 열일곱 권 분량의 시에는 한국전쟁, 5·18 광주 등 역사적 삶에 대한 묘사로부터 삶에 대한 실존적 의식, 구도의 종교지향, 여성적 일상에 대한 성찰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다. 이처럼 시의 깊이나 다양성을 미루어 볼 때 홍윤숙은 여성시사만이 아니라 현대시사에서도 의미있는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윤숙 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후시인으로, 동시에 여성시인으로, 20권에 가까운 개인시집과 다양한 장르적 작품들을 남긴 시인으로 홍윤숙의 작품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50여 년의 시력(詩歷)이 완료된 지금, 그간의 시를 조망하여 홍윤숙 시적 특징을 고찰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홍윤숙 시의 '시적 공간'에 주목했다. 공간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적, 실존적 조건을 만든다.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시공간의 좌표 속에 결박된 자이다. 특히 문학에서의 공간은 단순한 배경과 같은 형식적인 틀이 아니며, 시적 화자의 지향과 정서가 펼쳐지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인의 내면의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시의 주된 모티프나 이미지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윤숙 시의 시적 인식과 가치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초점으로 '타관'이라는 시적 공간을 살필 것이다. 이 시적 공간은 홍윤숙의 전 작품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시인 또한 산문이나 시작 노트를 통해 여러 차례 '타관'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홍윤숙의 시에서 '타관'은 삶과 죽음, 고향과 타향, 인간 근원의 고독과 같은 시적 인식을 펼치는 시적 공간이다. 이는 분단 디아스포라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한편으로 죽음과 삶에 관한 실존적

되어 있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타관'은 시인의 세계인식과 인식의 지형을 드러내며, 홍윤숙 시 전체를 관류하는 주요한 핵심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한 시인의 개인적, 집단적 경험과 그 상처들을 담아낸다.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언어화된 시적 공간으로서의 '타관'의 의미를 여러 이미지들을 통해 살피고, 3장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타관'의 확장적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홍윤숙 시의 시적 공간에 대한 이 연구는 홍윤숙 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시적 특징을 규명하는 의의를 갖는다.

2. 시적 공간으로서의 '타관'

'공간성'은 물리적 자연으로서의 물리적 공간과, 인식과 재현의 정신적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6] 그것은 다만 개인과 집단의 배경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 의미를 뛰어넘어 인간 실존의 조건이 된다. 공간을 사유하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데, 특히 시적 공간은 인간의 상상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실제의 공간과 차별화된다. 시적 공간은 상상되거나 현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재하는 공간과 다르며, 언어를 통해 재현되고 상징화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시적 공간은 시적 화자의 여러 상황과 지향, 세계인식 등을 상상력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시적 공간은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 체험이나 경험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며, 언어로 재현되고 실현된 상징공간이다.

인간은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7]에 대해 개인적, 경험적인 기억을 갖게

6) 에드워드 소사, 이무용 역,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106쪽.

7) 현대의 인문지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공간에 주목하고 있다. 이-푸 투안, 에드워드 소사, 에드워드 렐프 등의 지리학자들은 장소와 공간을 분리하여 논의한다. 그들에게 장소는 경험적이고 물리적이다. 반면 공간은 인간의 경험과 의미가 아직 투영되지 않은 세계이다.(이-푸 투안, 구동회 외 역, 『공간과 장소』, 대원, 2005. 19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와 공간이 일종의 사실과 개념과 같은

된다. 이와 같은 경험과 기억은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죽은 시간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주관적이며 살아있는 체험으로 시 속에서 재현된다.[8] 시적 화자의 기억은 그저 추억되는 그림이 아니다. 모양과 부피, 각각의 색채, 냄새들을 통해 현실감을 가지게 되며, 문학 공간 안에서 생생한 양감들을 만들어낸다.

이 장에서는 언어화된 시적 공간으로서 '타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타관'이라는 공간이 홍윤숙의 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며, 어떻게 시 안에서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공간으로 상상되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타관'이라는 시적 공간을 여러 이미지들의 관계들을 통해 살피는 일은 3장에서 '타관'의 확장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타관'은 홍윤숙 시에 자주 등장하는 시어이자 공간이다. 대표적으로 시집 『타관의 햇살』이 있으며, 그 안에 「타관의 거리」라는 제목의 연작편이 있다. 또한 이 시어는 여타 다른 시집들의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필자가 '타관'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반복성 때문만은 아니다. '타관'은 홍윤숙 시의 시적 인식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시어가 되기 때문이다. 시인은 '타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삶과 일상에 대한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사유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홍윤숙의 시에서 '타관'은 단일하지 않고, 의미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 실현되고 재현되는데, 때로 구체적인 생존의 공간이기도 하고, 우연히 여기 이 자리에 생명을 얻게 된 인간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분단이라는 역사적 삶 속에서 타자로

관계, 즉 공간은 장소를 토대로 존재하게 되며, 장소는 공간을 통해 자신의 맥락적 의미를 확보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공간을 내부성과 외부성, 집단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존적 내부성, 감정이입적 내부성, 행동적 내부성, 대리적 내부성, 부수적 외부성, 객관적 외부성, 실존적 외부성 등으로 구분된다.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16~128쪽 참조.) 본고에서 장소와 공간의 구분은 이들의 논의에 근거한다.

8) 이-푸 투안, 앞의 책, 6~8쪽.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외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리
기다리지 않아도 좋으리

우리는 지상에 떨어진 수만의 별들
제각기의 길을 가는 각각의 그림자

– 「생명의 향연」(『여사시집』)의 부분

이 시에서 '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상이 아니며 꿈과 동경의 지향체와도 다르다. 홍윤숙의 '별'은 '지상에 떨어진' 우연한 것이며, '수만의'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제각기' 길을 간다. 그것은 인간 존재를 우연하고, 개별적이며,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다. 우리의 삶은 필연적인 어떤 이유도, 특별함도 없이 모두 이 땅에 떨어졌으며, 수만의 존재들과 함께 각각의 운명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존재는 고독하고 개별적이다. 이와 같은 단독자로서의 운명 앞에서 '사랑'이나 '기다림'과 같은 숭고한 감성들은 의미 없이 흩어진다. 사랑이나 기다림은 다른 사람과의 깊은 만남을 전제하며, 그것은 인간 본연의 고독과 운명에 반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시적 공간은 '길'로 표상된다. '길'은 지상에 떨어진 별들이 제각기 걷는 공간이고, 그들의 삶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간이다. 인간의 삶은 '길' 위에 있다. 홍윤숙의 시에서 '길'은 정지와 쉼의 공간을 의미하지 못한다. 길은 고난과 쉼 없는 행군, 집이나 거주할 곳의 상실을 전면화한다. 길 위에 끊임없이 떠도는 삶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대한 이와 같은 허무주의적 인식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길' 위에서의 방황이나 각각 살아가는 존재라는 단독자적 의식은 단지 시인의 관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전쟁을 비롯한 역사적 체험이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분단, 이민을 경

험한 시인에게 삶은 홀로 걸어가는 실존의 공간이자, 낯선 땅으로 떠돌아다니는 여정에 불과했다. 이러한 시인에게 시는 방황과 고독한 삶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 모든 집들의 창은 닫히고/닫힌 창 안으로 숨들 죽이고
> 눈물도 마른 잠에 혼불 끄는데//
> 나는 왜 끝내 겨울 눈밭에/ 허벅지 빠뜨리고 돌아가지 못하는
> 한 그루 포플러로 떨고 섰는지
>
> -「겨울 포플러」(『사는 법』)의 부분

> 돌아가는 지상엔/ 인연의 삭은 새끼줄 한 타래
> 줄줄이 엮은 시름과 애물들이/ 재회의 등불 켜고 기다리는 골목들
> 지친 어깨 번득이는 이물도/ 유순히 피가 삭는
> 이승의 저녁 연기 자욱한 아산만 나루/ 그리움에 핏줄마다 이슬 젖는다
> 바다는 뭍이 있어/ 돌아올 뭍이 있어/ 떠도는 타관이다
>
> -「돌아오는 배1」(『경의선 보통열차』)의 부분

이 두 시는 '타관'이라는 공간이 개인의 테두리를 넘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적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집 후기에서 밝힌 바 있듯 1983년에 상재된 『사는 법』은 1980년 광주의 집단적 광기와 공포를 보여주고 있다. 첫 인용시에서 나타나는 공간은 '집'과 '겨울 눈밭'이다. 이 시에서의 '집'은 안락함과 편안함의 의미를 보여주지 못한다. 인간 생존의 최소한의 안전지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채 '창은 닫히고', 숨을 죽인 채 혼불을 끈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집(내부)은 유폐와 폐소의 불안증을 유발한다. '나'라는 시적 화자 또한 '겨울 눈밭'에 어디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한 그루 포플러'이다. '떨고 섰다'는 동사는 공포로 점철된 자아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낸다. 공포에 사로잡힌 자에게 집 밖과 안은 별개의 의미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는 집의 궁극적인 상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인용시가 실린 시집『경의선 보통열차』또한 이산(離散)과 같은 집단적 경험을 전면화한다.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마흔 아홉에 세상을 등진 조부, 사랑에 빠져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린 아버지와 빈 집과 함께 늙어가던 할머니와 어머니가 시적 화자의 상흔이 된다. 이 시집은 이와 같은 가족사 이외에도 휴전선의 풍경, 남부여대하여 나라를 등지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되살려낸다.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고향의 장소들을[9] 전면화하는 위 인용시 또한 '아산만 나루'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전쟁과 이민, 이산의 고통을 재현한다. 그곳은 한 타래의 '인연'과 '시름', '애물'들이 서로 얽혀 있는 곳이다. 그 고통과 생경함이 삭아내리는 곳이 바로 '아산만 나루'인 것이다.

이 시에서 '바다'는 끝없는 유랑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길'의 또 다른 언어이며, '뭍'은 돌아올 곳으로서 '집'의 또 다른 비유어이다. '길'과 '집'은 서로를 전제한다. 길 위에 떠도는 것은 '집'을 잃었기 때문이며, 길 위에서의 삶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추구한다. '아산만 나루'의 '나루'는 이와 같은 집과 길, 뭍과 바다가 접점하는 공간이다. 시적 화자는 그 교차의 공간 안에 역사 속에 얽힌 사람들의 길과 방황에 대한 고단함을 펼쳐놓는다.

이들 시에서 집의 상실과 정착에의 지향은 '타관'의 공간성과 관련된다. '집'과 '길', 그리고 '바다'의 공간은 시적 화자의 상처와 지향을 드러내는 시적 공간이자, '타관'을 드러내는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타관'은 각자 살아가는 단독자의 고독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소외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길은 여기서 잠시 휘어지고/ 내일은 미지의 해협을 건너갈 땅의 끝"(「변방에서」)과 같은 시구에서 보듯 '타관'의 '길'은 집으로 돌아가

9) 에드워드 렐프는 공간을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기호와 상징을 포함하는 추상적 사고로 정의한다. 그에 반해 구체적인 맥락, 물질적인 지명 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장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간은 장소에 그 구체적인 맥락을 주고, 동시에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소들로부터 그 의미를 얻게 된다.(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39쪽.)

는 자의 낙관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것은 공간적 정체성을 구성하지 못하는 공간 상실의 상태를 보여준다. '휘어지다'와 '끝'과 같은 존재의 한계상황에 대한 불안과 종말의식은 홍윤숙의 시 세계를 실존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점철해 가고 있다.

요컨대 '타관'이라는 시적 공간은 다양한 이미지와 언어를 통해 전개된다. 그곳은 지상에 우연히 떨어진 각각의 '별'로 구체화되기도 하며, 길 위에서 떠도는 방랑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개인의 역사적 체험을 드러내기도 한다. 전후문학의 지형 속에서 불안과 상실을 드러내는 '타관' 의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타관에 대한 인식 이면에는 항상 '본래의 것', '돌아가야 할 곳'과 같은 의미가 역설적으로 내재해 있다. 시적 화자는 이와 같이 돌아가야 할 곳과 떠도는 곳 사이의 경계 공간에 위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경계는 시적 화자의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인 고단한 삶의 여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시적 공간으로서의 '타관'은 다양한 의미로 확정되는데, 이를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타관'을 통해 본 홍윤숙 시의 공간의식

3.1. 이민자 의식과 역사적 주체의 공간

홍윤숙 시의 경험적인 시적 공간은 '고향'이라는 기억 공간으로 나타난다. 시인에게 고향은 다사다난했던 가족사가 있는 곳이고, 분단이라는 외적 사건으로 인해 분리되고 상실된 공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실향의 경험은 디아스포라적[10]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디아스포라란 이민의

10) 디아스포라(diaspora)는 이산(離散)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원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규범과 관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고유명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흩어진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속해

경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민'이 자유의지에 의한 이주를 가리키는 데 반해 디아스포라는 이와 같은 이민이 역사적, 집단적 요건에 의해 강제로 진행된 경우를 가리킨다. 일제강점기의 이산이나 유민, 분단기의 실향과 정이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홍윤숙의 시 또한 분단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황해도 연북에서 태어나 평북 정주에서 유년을 보내고 성년 이후의 삶을 서울에서 보낸 시인의 이력은 이와 같은 이산경험의 시를 읽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 경험은 시인에게 하나의 외상으로 기능하며, 결핍과 상실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홍윤숙 시의 '타관'은 이러한 고향상실의 개인적 경험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동시에 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과 이민이라는 집단적인 경험으로 확장된다.

> 고향을 떠난 이는/ 날마다 뜀박질로 산을 넘는다
> 그같이 넘어온 너의 겨울들/ 그 산하의 찬서리 새벽별에 눈이 트는 실뿌리
> 실뿌리 야무진 새 집 창 밖에/ 이윽고 사월의 따뜻한 비 내리고
> 마른 땅 구석구석/ 추억과 희망의 꽃씨 섞으며
> 봄을 위한 끝나지 않는 꿈을 예비하리라
> 어디서나 그렇게/ 지상의 날들은 뜨고 저문다
>
> – 「이별 · 2」(『태양의 건넛마을』)의 부분

이 시의 공간은 '산', '새 집' 등이다. '산'과 같은 공간은 날마다 뜀박질로 넘어야 하는 고난의 공간이고, '찬 서리'와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새 집'은 '사월의 따뜻한 비', '추억과 희망의 꽃씨', '봄'과 같은 계절감에 의해 따뜻하고 희망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이 시의

있던 공동체와 땅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서경식은 디아스포라적 존재를 근대 특유의 역사적 소산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공동체와 땅을 떠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하고 있다.(서경식, 『디아스포라 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3~15쪽 참조)

시상은 '산'에서 '새 집'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전개되며, '새것'이나 '봄'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새 집'이 갖는 공간의 긍정성이 강조되고 있다. '겨울'과 '봄', '고향'과 '마른 땅'의 알레고리적 대립은 긍정적인 공간이동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향을 떠난 이'라는 시적 인물과 '이별'이라는 이 시의 제목은 그러한 공간 이동의 긍정적 방향과 '끝나지 않는 꿈'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고향을 떠난 이'는 날마다 뜀박질로 산을 넘으며 겨울을 넘어 온다. 실향과 이산에 이은 남으로의 이동은 산을 넘는 과정과 겨울을 넘는 과정으로 은유화되며, 그렇게 얻게 된 '새 집'은 도주와 피난의 고난을 통해 이룩된 것이다. '이별'이라는 제목은 이 시가 '새 집'이라는 공간을 얻게 되는 희망의 과정만이 아니라 고향이나 사람들과 이별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한 서사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시의 알레고리가 구성하는 긍정적인 시상들은 '이별'이라는 제목과 상충되면서 상처와 극복, 실향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고향을 상실한 이는 고향으로 환기되는 존재들과, 장소를 통해 구성되는 자기정체성 등을 더불어 상실하게 된다. 이는 다른 공간을 통해서는 극복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근원의 결핍과 상실을 불러올 수 있다. 홍윤숙의 시적 화자는 아직도 그 '소싯적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고백하고(「타관의 거리 3」), 어머니의 '등불 밝힌 집'(「귀로 3」)을 추억한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고향'이라는 경험적 공간에 결박된 자이며, 그러한 상실과 결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임을 고백한다. 이들 시에 나타나는 '아직'이라는 수식어와 '어쩌면 지금도'라는 기대의 언어들은 시적 화자의 상실감과 끊어낼 수 없는 미련의 정서를 드러낸다.

> 이 강산에 눈 내리고/ 이 거리에 눈 내리고
> 내리고 내려 쌓여/ 집과 길과 마을 다 지워버리고
> 움직이는 모든 것 다 묻어 버리고/ 차 소리 바람 소리 발자국 소리도 끊어진

백마(白魔)의 광야에 일광도 길을 잃고/ 구름에 잠길 때/ 생의 귀향은 시작된다

종점에 다다라 먼 길 떠돌던 마음/ 안으로 안으로 시냇물 건너고
신작로 내고 기찻길 놓고/ 북으로 북으로 유년의 산하로
흙 담벽 그리운 아득한 옛길/ 천수산 골짜기 오봉산 기슭으로
내 어머니 물 묻은 앞치마/ 풀물 든 손 닦으며
등불 하나 깜빡이는 황토방 아랫목/ 당목면唐木綿차렵, 포근한 꿈길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 「생의 귀환」(『그 소식』)의 부분

이 시는 '고향'이라는 기억공간으로의 회귀를 추구한다. 고향에 대한 묘사는 감각적이고 구체적이다. '고향'이라는 시적 공간은 구체적인 장소성을 띠게 되며 감각적인 언어들을 통해 생생히 재현된다. '시냇물을 건너고', '신작로 내고 기찻길 놓고'로 나타나는 귀로의 과정은 '북'의 '유년의 산하'로의 회귀를 위한 노력이다. 이는 '흙 담벽', '천수산 골짜기 오봉산 기슭', '황토방 아랫목', '꿈길'로 이어진다. 고향은 '천수산'이나 '오봉산 기슭'과 같은 지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풀물 든 손', '등불' 등의 시각적인 강조와 '당목면'과 같은 촉각적 언어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천수산'이나 '오봉산'과 같은 지명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고향을 되살리는 구체적 장소이자,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억 공간이라 할 수 있다.[11] 개인의 기억은 그것이 거주하는 공간과 상호작용한다. 그것은 장소애(topophilia)적 공간이다. 장소애는 사람과 장소

11)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장소의 정체성이란 장소와 장소 경험의 주체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소 정체성은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라는 세 가지 요소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것이기도 하다.(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08~115쪽 참조.)

또는 배경에 대한 정서적 유대이다.[12] 특히 자연적 환경은 그와 관련된 인간의 경험이나 기억이 깃든 장소이며, 인간의 정서와 긴밀하게 밀착된 공간이 된다. 그곳은 '그리운', '아늑한', '포근한'이라는 수식적 시어를 통해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홍윤숙 시의 시적 화자는 고향 바깥에 존재한다. 이러한 고향의 상실은 기억을 불러오고 공간 속에 기억의 시간들을 되새겨 놓는다. 여기에서 고향에 대한 추구는 현재의 시적 화자의 공간이 '타지'이며 '타관'일 뿐이라는 근원적 상실감을 보여준다. '뿌리 뽑힘'의 고향 상실의 감각[13]은 이민과 이산의 디아스포라적 의식을 되풀이한다. 홍윤숙 시에 자주 나타나는 '집세우기'의 열망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향의 상실이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단과 이산이라는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타관에서의 '집' 세우기는 구체성을 띄지 못하며 상실과 결핍의 상처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유한한 삶의 인식과 실존의 공간

홍윤숙은 우리가 떠돌던 거리, '새로운 풍물, 신비로운 인연, 감동적인 사건'의 거리를 '타관'이라고 부른 바 있다.[14] 그에 따르면 인생은 '단 한

12) 이-푸 투안,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21쪽.

13) 에드워드 렐프의 논의에서 '무장소성placelessness', 혹은 장소상실은 장소가 상업적 개발과정에서 개성을 박탈당해 동질적이고 규격화된 경관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3쪽 참조) 그는 장소의 정체성이 진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장소감 또한 비진정한 것이고, 그 장소의 진정성 또한 비진정한 것이라 논의하고 있다. (송명희, 「이상화 시의 공간과 장소, 그리고 장소 상실」, 『이상화 시의 기억공간』, 수성문화원, 2015. 87쪽 참조) 이와 같은 논의를 참조할 때 렐프가 바라보는 '장소상실', '무장소성'은 현대사회의 장소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장소는 키치적인 비진정성과 타자지향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적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렐프는 이-푸 투안의 '토포필리아'가 아닌 '토포포비아'의 용어를 사용한다.

번 허락된 일회뿐인 외출'일 뿐이며, '지상에 머무는 몇 십 년의 체존(滯存)'[15]에 불과하다. 우리가 떠나온 곳과 돌아가야 할 곳의 시간에 비한다면, 몇 십 년에 불과한 지상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상태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삶의 협소함과 유한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타관'이라는 시적 공간은 시간의 긴장을 피할 수 없다.

> 그날/우리는/바다에 내렸다//
> 시든 해바라기의/쇠락한 여름이/피곤한 몸을/바다위에/눕히려 할 때
> 우리는/멀고 아득한 길을 돌아/그 저무는 날을/바다에 다다랐다
> 남은 해는/엷고/시간 또한/사라져 갔다//
> 청춘은/우리 뒤에/조금씩 망설이며/멀어져 갔고//
> 인생은 차츰/차단한 광석으로/굳어져 갔다//
>
> – 바다의 기억(『일상의 시계소리』)의 부분

이 시에서 시적 공간은 '바다'이다. 그곳은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려 선 곳이며, '쇠락한 여름'이 '피곤한 몸'을 눕히려하는 시간의 장소이다. 이 시에서 '바다'라는 시적 공간은 '여름', '청춘', '인생'과 같은 시간을 드러내는 시어들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시든', '쇠락한', '피곤한'과 같은 수식어들은 시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적 반응을 보여준다. '우리'가 놓여 있는 현재는 저무는 날이고, 청춘의 시간 또한 사라져 갈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생의 활기와 활력은 이 시에서 '차단한 광석'으로 굳어져 버렸다. 이와 같이 '바다'라는 공간은 시들고 쇠락하며, 멈추어 버린 시간성에 의해 지배받는다.

'차단한 광석'의 광물적 이미지는 이 시에서 중요한 모티프이다. 시간의 흐름으로 전개된 시상 흐름을 참조할 때, 이러한 '차단한 광석'은 시간의 정지나 멈춤, 생명 없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시적 화자의 인식은 이

14) 홍윤숙, 「시를 위한 산문」, 『하지제』, 문지사, 1978.
15) 홍윤숙, 『타관의 햇살』 시작노트, 유림문화사, 1974.

와 같이 시간의 정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노출하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경색된 삶의 피로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타관'이라는 공간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광물 이미지로 나타나는 예는 다음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여름은 길고 뜨거웠다/ 西向한 집은 잠시 불 타다 스러질 것이며
善良한 마음들은 어둠을 향해/ 경건한 十字架를 그을 것이다

오늘 아직은 타관에/ 狼籍한 새소리에 잠이 깨고
드높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아이들과 태양을 강으로 보내고
부서진 하루의 문을 여는/ 猶豫된 시간을 우리는 所有한다

균열진 마른 땅에 /하얗게 漂白한 白色의 日光이/ 외로이 뒹굴고
무게도 없이 일어서는 투명한 過去가 / 반짝이는 눈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은 날을/ 한 조각 구름이 되어 자유로이 흐르다
해바라기 탐스런 꽃잎에 앉아/ 화려한 웃음소리 햇빛 타는 소리를 / 잠잠히 듣고
일어버린 시간의 遺失物을 찾아/ 조용히 꽃잎을 뒤집어보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지 않았는가

겨울엔 겨울의 태양이 있고/ 마른 잎엔 대지의 잠이 있다

우리의 타관은 아직 빛나는 햇살 속에 있다

- 「타관의 햇살1」(『타관의 햇살』)의 전문

총 6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①~②, ③~④, ⑤~⑥연으로 나누어 논의

할 수 있다. ①~②연과 ③~④은 시상 전개가 유사하다. ①과 ③연은 '스러지다', '어둠', '외로이', '사라지다' 등의 시어들을 통해 '여름'과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동시에 뜨겁고, 균열지며 말라 있다. '투명'하고 '반짝이는 눈물'은 이와 같은 사라짐의 허망함을 은유화한다. 반면 ②연과 ④연에서는 '오늘 아직은', '남은 날', '아름다운 시간' 등의 시어들을 통해 유예된 '오늘'의 생명과 삶의 소리들에 집중한다. 새소리, 아이들과 태양, 화려한 웃음소리는 이러한 삶의 활동성과 생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①③/②④의 대립적 시상 전개는 시간의 흐름과 멈춤, 소멸의 필연성과 삶의 의미 사이의 대립을 보여준다.

이 시의 '타관'이라는 공간은 앞선 인용시의 '차단한 광석'이 갖는 생명의 정지나 경색과 같은 부정적 특징을 그대로 재현한다. 그곳은 '서향한 집'이며, '균열지고 마른 땅'이다. 시간이 훑고 지나간 '타관'의 공간은 '스러지다', '균열진', '마른', '외로이'와 같은 수식어들을 통해 소멸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이 시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마르고 균열지고 스러져가는 '타관'에 비치는 '햇살'이다. '햇살'은 '빛나는'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긍정적 가치를 나타낸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불타다 스러'지고, '균열진 마른 땅' 위에 외로이 서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빛나는 햇살은 삶의 '유예된 시간'을 은유화한다. 삶의 찬란함을 보여주며, 차고 경색된 타관의 공간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이 유예된 시간은 '부서진 문'을 열고 우리의 오늘을 '뒤집어보는' 여유를 줄 것이다. 그것은 성찰과 소통의 시간을 의미한다.

타관에 비치는 '햇살'과 그것이 상징하는 '유예된 시간'은 시간을 멈추고 공간의 현재성을 증폭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계기적인 연속성을 상실하고, 정지된 채 시적 공간 속에 머문다. 여기에서 시적 공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고, 기억하며, 과거의 시간을 현재라는 공간 속에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사유의 역설은 ⑤~⑥의 마지막 연에서 '겨울엔 겨울의 태양이 있고/ 마른 잎엔 대지의 잠이 있다'는 시적 화자의

생에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겨울과 마른 잎 속에서 그만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타관의 햇살」은 삶의 유한성이 가진 참담함을 하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노력을 드러낸다. 이 시에서 시간은 정지함으로써 '현재'라는 공간 속에 머물고 있다. 이는 '시간의 공간화'[16]라는 용어로 논의될 수 있는데, 시간의 공간화는 시간의 응축과 시적 순간에의 집중을 의미한다. 이로써 직관의 순간과 '삶의 가치'라는 시적 주제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타관'은 그저 고향으로, 혹은 신의 세계로 들어서기 전에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통로에 머물지 않는다. '타관'은 전쟁과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쳐 온, 그리고 신의 세계마저도 가장 반성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한 홍윤숙의 시적 화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17] 인간의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관' 속의 이방인이지만, 그 안에 비춰드는 '햇살'은 이와 같은 유한성을 초월하고 극복하려는 전망과

16) 이희상은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시간론을 설명하는 논문에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행위에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논의한다. 시간의 연속적이고 계기적인 흐름을 공간적으로 파악한 것이 '시간의 공간화'이며, 그 역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희상, 「근대성의 도시에서 시간화된 흐름과 공간」, 『문화역사지리』 20권 2호, 2008. 14~16쪽 참조) 본고는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시적 공간 내에 기억과 같은 과거의 시간이 실현되는 것과 더불어 시적 순간에의 집중과 같은 시간의 응축을 '시간의 공간화'로 보았다.

17) 홍윤숙의 종교시 또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홍윤숙 시인은 그의 시 전반에 종교성이 짙은 시를 상당히 많이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종교시는 신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순종, 기원과 염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구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홍윤숙의 종교시는 그에 비해 일상적이고 인간적이다. 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신의 세계를 이해한다. 그의 시에서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겨우 서른셋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홍윤숙, 『어머니, 나의 어머니』, 바오로딸, 2011. 192쪽.)이며 동시에 나와 함께 걷는 자이다. 홍윤숙 시에 나타나는 종교인으로서의 구도 또한 초월적이라기보다 반성적이며 인간적인 것이다. 시간은 이러한 신의 존재에도 스쳐간다. 홍윤숙의 시는 삶의 위안이 되는 인간적인 존재로 신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신에 의지하고 신에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인간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지향을 담고 있다.

4. 결론

홍윤숙은 60여 년의 시작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시집을 엮어냈고, 그 사이사이에도 여러 수필집과 시선집 등을 상재했다. 이와 같은 행보는 단지 시인으로서의 부지런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적어도 홍윤숙 시인에게 시는 자신의 삶과 감성의 기록의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닌가 유추해 본다. 마치 그것은 일기처럼 정기성과 계획성을 지니고 있다.

시인이 자신의 온전한 생 동안 쓴 작품을 몇 개의 이미지나 주제 등으로 유형화, 고찰하는 것은 난해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이다. 시는 하나의 근원으로 회귀하지 않으며, 다양한 주제, 이미지, 감성으로 형상화된다. 특히 홍윤숙 시인처럼 60여 년의 삶을 시로 담아낸 시인의 작품은 더욱 그러하다. '타관'의 의미 또한 다양한 의미로 증폭된다. 홍윤숙 시에 나타난 타관은 단지 구체적인 지명이나 장소를 넘어 홍윤숙 시의 시적 특질을 보여주는 시적 공간이다. 시적 공간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녹아 있는 공간을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다. 그것은 언어화된 공간이며, 시적 화자의 의식과 무의식이 발현되는 장소이다. 홍윤숙의 시에서 '타관'이 직접 나타나 있는 시는 수십 여 편에 이른다. 타관이라는 시어에 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실존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수십 편을 넘어 홍윤숙의 시적 인식을 보여주는 핵심 시어로 확장될 수 있다. 여기에서 '타관'은 홍윤숙 시를 가로지르는 주요한 모티프로, 삶과 죽음, 세속과 신성, 그리고 타향과 고향 등의 경계의식을 드러낸다.

'타관'은 지금 현재 시적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이다. 그것은 현재의, 실존의, 이미 개인에게 던져진 현실적인 공간인 것이다. 그것은 이질적이고 속세적이며 불안정한 공간이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타관'에 깃드는 '햇살'이란 어쩔 수 없이 내던져진 인간

의 실존 공간과 그를 넘어서는 초월 지향을 은유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윤숙 시의 시적 화자는 이러한 분리된 공간 속에 부유한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삶을 타관이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고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공간이 화해하지 못하고 그 차이를 나타내며, 그 안에서 쓸쓸하고 불안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은 홍윤숙 시의 허무주의적 면모를 만든다. 그것은 타관 속에서 떠돌며 살아가야 했던 시인의 개인적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식민지와 한국전쟁, 근대화, 광주항쟁 등의 역사적 회오리 속에서 타자로 살아야 했던 삶의 여정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혹은 평생을 종교에 의탁하고 있었지만 절대적인 신이 아닌 인간적인 신을 섬겼던 것이나, 부지런히 삶의 여정을 수필, 시 등에 쏟아 부었지만 결국은 문학이 현실의 삶에 있어 무기력한 것일 뿐이라는 냉소적 자세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홍윤숙 시는 타관 속에서 이방인의 의식을 드러내면서도 항상 죽음을, 고향을, 신의 무한함에 대한 지향을 놓지 못했다. 홍윤숙 시의 시적 화자는 현재하고 있는 곳과 그 너머의 세계 모두에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꽃이 지는 시간, 저녁, 가을과 겨울 시편이 많았던 것도 시 내면에 깔린 허무주의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한편으로 삶의 고귀함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이고 허무주의적인 홍윤숙의 시는 여성시의 지형에서 독특한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홍윤숙 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은 부분 남아 있다. 특히 홍윤숙 시의 여성시적 특징과 미적 특질을 밝혀내는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가운데 '타관'이라는 시적 공간의 의미를 고찰하고, 그를 통해 홍윤숙 시의 시적 지향과 특징을 살펴보는 데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홍윤숙,『여사시집』, 동국문화사, 1962.
홍윤숙, 『풍차』, 신흥출판사, 1964.
홍윤숙,『장식론』, 하서출판사, 1968.
홍윤숙,『일상의 시계소리』, 한국시인협회, 1971.
홍윤숙,『타관의 햇살』, 유림문화사, 1974.
홍윤숙, 『하지제』, 문지사, 1978.
홍윤숙,『사는법』, 열화당, 1983.
홍윤숙,『태양의 건넛마을』, 문학사, 1987.
홍윤숙,『경의선 보통열차』, 문학세계사, 1989.
홍윤숙,『낙법놀이』, 세계사, 1994.
홍윤숙,『실낙원의 아침』, 열린출판사, 1996.
홍윤숙,『조선의 꽃』, 마을, 1998.
홍윤숙,『마지막 공부』, 분도출판사, 2000.
홍윤숙,『내 안의 광야』, 열린, 2002.
홍윤숙,『지상의 그 집』, 시와 시학사, 2004.
홍윤숙,『쓸쓸함을 위하여』, 문학동네, 2010.
홍윤숙,『그 소식』, 서정시학, 2012.

2. 단행본

김재홍,『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 196쪽.
김해성,『한국현대시문학전사』, 형설출판사, 1975. 572쪽.
서경식,『디아스포라 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2006. 3~15쪽.
허갑순,『현대시의 시간과 공간인식』, 책가, 2016. 28~44쪽.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기억의 공간』, 그린비, 2005. 15~34쪽.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39~128쪽.

에드워드 소사, 이무용 역,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간과 언어, 1997, 106쪽.
이-푸 투안, 구동회 ·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2007, 6~19쪽.
이-푸 투안,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에코, 2011, 21~146쪽.

3. 논문

김광림, 「이 시대를 사는 아픔의 인식」, 『현대시학』, 1979, 3월호, 92쪽.
김인경, 「홍윤숙 초기 시의 실존의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0, 2013, 5~29쪽.
김지향, 「홍윤숙 시에 나타난 생활적 애정의식 연구」, 한양여자전문대학논문집 14. 1991, 153~195쪽.
김현, 「감상과 극기-여류시의 문제점」, 한국여류문학인회 편, 『여류문학전집6』, 삼성출판사, 1967, 323~356쪽.
김현자, 「홍윤숙의 거리두기와 집짓기의 시학」,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문학과 지성사, 1997, 297~299쪽.
송명희, 「이상화 시의 장소와 장소상실」, 한국시학연구 23, 2008, 219~242쪽.
이경수, 「1950년대 여성시의 지형과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 『여성문학연구』 21, 2009, 7~44쪽.
이희상, 「근대성의 도시에서 시간화된 흐름과 공간」, 『문화역사지리』 20권 2호, 2008, 14~42쪽.
장일구, 「장소에서 공간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6, 2009, 23~50쪽.
한원균, 「한국 현대문학과 도시공간의 의미」, 『한국문예창작』 14, 2008, 7~36쪽.

Abstract

A study of the Spatiality of 'Strange Land' in a Poem of Hong Yoon-Sook

O, Yoon-Jeong

Hong Yoon Sook is said to be a poet who shows a unique character in female poem after the war. Previous study about her poem is that it's speculative and inward looking, as well as focused on the intellectual and emotional control.

However, her poetry hasn't been studied in a comprehensive way so far, for example, the evaluation has been confined to her single book of poems and she has been just compared to the other female poets of the same period and left with just a brief comment.

The reason her poetry is excluded from the synthetic study seems that she wasn't a part of certain tendency or a school of literature, and she was a female poet as well.

Here and now, in order to study her poetry, I focus on her poetic space, so called 'Strange Land'. The strange land in her poem is a space differentiated with a specific place or its name, which shows her uniqueness, and the poetic space is verbalized one where the private or group experience is melted, and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of the poetic narrator come to life.

The poetic narrator is existing in both sides, e.g. human and god, life and death, home and strange land. The poetic narrator is pulling out the recognition about the time, that is, finitude of life, revealing its diasporic identity by using the word 'Strange Land'.

This kind of Hong's ontological and nihilistic poem shows her uniqueness in the field of women poems. This is one of the studies to be done about Hong Yoon Sook's poetry, looking at her poetic aim and its characteristic, focusing the meaning of 'Strange Land', a poetic space. There are still a lot of parts about her poetry to be studied.

Key words : Hong Yoon Sook, Strange Land, Poetic Space, Spatiality, Memory Space, Topophilia, Diaspora, Spatialized Time, Temporalized Space

■ 본 논문은 2016년 7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